

10/31(목) 긴급 NSC 상임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오늘 10/31(목) 07시10분경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기로 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

국들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킨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했습니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계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 나가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끝 //